



# 한국 교회사 연구 방법론

김 영 재

(합동신학교 교수/ 교회사)

## 차 례

### 1. 한국 교회사 중요 저서 및 논문

1. 평이한 역사 서술로서의 교회사
2. 선교학적인 관심에서 본 교회사
3. 기독교 토착화 및 신학적인 관심에서 본 교회사
4. 민중신학의 한국 교회사 이해

### 2. 한국 교회와 교회의 전통

1. 한국 기독교사와 한국 기독교회사
2. 교회관과 교회사관 문제
3. 개신교의 교회사관과 한국 가톨릭 교회사 이해
4. 한국개신교의 교회전통
5. '교회전통'에 대한 이해

### 3. 한국 교회사의 과제

## 1. 한국 교회사 중요 저서 및 논문

### (1) 평이한 역사 서술로서의 교회사

한국에서 개신교의 선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초대 선교사들은 본국에 선교 보고를 보냄과 동시에 교회의 설립과 그 성장에 관한 글은 물론, 한국의 지리, 역사 및 문화에 관한 많은 글을 쓰고 책도 발간하였다.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 1892, 1895~8), 「코리아 리뷰」(*The Korea Reivew*, 1900~1905) 또는 「코리안 미션 필드」(*The*

*Korea Mission Field, 1905~1942*) 등은 주로 이런 선교사들의 글이 실린 정기 간행물로서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사료이다.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선교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도록 이렇다 할 역사적 자료가 될 만한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광수(李光洙)는 1918년에 이미 이러한 교회 자체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을 탄하였다.<sup>1)</sup>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회사 전휘집(長老教會史典彙集)」(1865~1911)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주로 선교공의회와 교회 또는 노회의 회의록을 발췌 수록하고 있는 정도이나 교회사 사료(史料)로서는 물론 귀중한 것이라고 하겠다. 1916년에 장로회 총회에서는 14인으로 구성된 역사연구 위원회를 두고 「장로교회사 전휘집」과는 별도로 소위 공인된, 좀더 역사서의 체제를 갖춘 교회사를 편찬하도록 위촉하였다. 그리하여 1928년에 비로소 「朝鮮 예수教 長老會 史記」 상권이 출판되었다. 1930년에 이미 탈고를 본 하권은 그 서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한 때 분실되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한국교회사학회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1968년에 출판을 보게 되었다. 백락준(白樂濬)과 김양선(金良善)을 위시한 여러 회원들이 그 책의 출판이 가장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백락준의 「한국 개신교사」(*The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는 한국 교회사 서술로는 제일 먼저 된 책으로 1972년 예일(Yale) 대학교의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되었던 것인데, 1929년에 영문으로 출판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백락준의 책은 훌륭한 논문일 뿐 아니라 한국 교회사 연구를 위한 고전(古典)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 선교 회년(禧年)을 당하여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사 편찬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장로교회에서는 1934년에 「長老教會史畫報」(*A Pictorial History: Illustrating the first fifty years of work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commemorating the jubilee year 1934*)를 국·영문으로 출판했으며, 감리교의 장정심(張貞心)은 같은 해에 「朝鮮基督教 50年史話」를 출간하였고, 채필근은 「朝鮮基督教發達史」를 1938년 8월부터 1939년 12월까지 기독교신문에 연재하였다.<sup>2)</sup>

1) 閔庚培, 한국 기독교회사, 1972, p. 18.

2) 閔庚培, 「韓國基督教會史」, p. 18



이 시기에 와서 좀더 학적인 면목을 갖추어 교회사를 쓴 이들은 주로 선교사들이었다. 해리 로즈(Harry A. Rhodes)는 1935년에 「*History of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를 썼는데, 각 선교 지역의 자세한 일까지 기록하고 있어서 장로교회사 연구의 좋은 자료로 평가할 만하다.

감리교회사로는 1947년에 스토우크(Charles Davies Stoke)가 쓴 미출반된 박사 학위 논문, 「*History of Methodist Mission in Korea, 1885~1930*」가 있으며, 한순남씨는 1970년 템플 대학교(Temple University)에서 앞서 말한 스토우크의 감리교사의 계속으로 미출판된 논문 「*History of Methodism in Korea, 1931~1965*」를 썼다. 브라운(George Thompson Brown) 선교사는 1962년 버지니아의 유니온(Union)신학교에 「*A History of the Korea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 from 1892 to 1962*」란 제목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였으며, 「*Mission to Korea*」란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미국 남장로교회의 선교 지역인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한 교회사이다. 1975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에서 편찬한 「大韓監理教會史」는 장로교의 「朝鮮 예수教 長老教會史記」와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 한국감리교회사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회사들은 주로 선교 활동과 교회의 성장을 역사적으로 기술한 책이라고 본다.

우리 나라 말로 충실하게 쓴 최초의 교회사로는 김양선(金良善)의 「韓國教會解放十年史」라고 할 것이다. 해방 이후 10년 동안 교회의 분열 등 파란곡절이 많은 시대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한편, 해방 이전의 역사도 소급하면서 쓴 점에 있어서 이 시기의 교회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료로 평가할 수 있다. 1945년 이전의 한국 교회사는 김양선의 소천 후 그의 생질이 되며 한국교회사 연구가인 김광수(金光洙)에 의하여 「韓國基督教史 研究」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1961년에 출판된 선교사 곽안전의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의 한국말 번역 「韓國教會史」는 한국 교회 전체를 단권에 수록한,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교회사 책이었다. 1971년에 다시 그가 쓴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는 주(註)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학적인 연구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 흠이지만 충실한 한

국 교회 역사서로 평가를 받을 만하다. 1970년에 출판된 이호운(李浩雲)의 「韓國基督敎會初期史」는 1832년에서부터 1905년에 이르는 역사를 자상하게 사료의 근거를 제시하며 기술하고 있고, 김광수(金光洙)의 1976년에 출판된 「韓國基督敎成長史」는 1884년부터 1919년 3·1 운동 때까지의 역사를 취급한다. 일본 동경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교회사 연구를 해 온 오윤태(吳允台)는 1978년 「韓國基督敎史」 제1권 경교사편(景敎史編)을 위시하여 1979년 제2권 가톨릭사편, 제3권 등 방대한 분량으로 충실한 기독교사 책을 내어놓았다. 1984년에 한국 교회 백주년을 기념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한국 교회 백주년 준비위원회 사료분과 위원회에서 민경배(閔庚培)의 집필로 「장로회 백년사」를 내어 놓았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사 연구회에서 회원들의 공동 집필로 출간한 「한국기독교의 역사」 I (1989)과 II (1990)는 국내외의 많은 자료에 근거하여 쓴 책인데, 한국의 문화와 역사 속에 성장해 온 기독교 역사를 뚜렷한 신학적인 주관 없이 역사 연구가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어서 교회사 사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유익을 준다.

## (2) 선교학적인 면에서 본 교회사

위에 든 바와 같은 사건을 중심한 평이한 역사 서술 외에 교회사를 특이한 입장에서 보고 기술한 교회사를 들자면 제일 먼저 콕안런(Charles A. Clark) 선교사가 1930년에 출판한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를 들 수 있다.<sup>3)</sup> 즉, 교회의 성장을 특정한 선교정책의 결과로 보고 검토하며 선교 방법론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왓슨(Alfred W. Wasson) 선교사는 1934년에 낸 그의 책 「*Church Growth in Korea*」<sup>4)</sup>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이 정치적 및 사회적 조건에 따라 10 년이란 주기를 두고 빨리 혹은 천천히 성장한다는 것을 관찰한다. 성명원(Roy E. Shearer) 선교사는 그의 저서 「*Wild Fire: Church Growth in Korea*」(한국어판: 韓國基督敎成長史)에서 위에 든

3) 그의 학위 논문은 *The Nationa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s a Test of Validity of the Nevius Principles of Missionary Method* (Chicago, 1929)이다.

4) 그의 박사 학위 논문: *Factors in Growth of the Church in Korea* (Chicago, 1931).



왔슨의 견해를 지지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교회 성장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갑수씨의 미국 Fordham대학교에 제출한 미출판된 박사 학위 논문 「*Sociology of Conversion Christianity in Korea*」(1961)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교회 성장을 관찰한 것인데, 그에 의하면 'social anomie', 즉 정상적인 규범을 벗어난 사회 상황 속에서 개종하는 신도 수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갑수씨는 여기서 선교 활동의 역할을 교회 성장의 요인에서 아주 배제하지는 않는다. 교회사 연구서라기 보다는 교회사를 통해 보는 사회학적인 연구서라고 본다.

위에 언급한 연구들은 교회사를 선교학적인 면에서 다룬 것이다.

### (3) 기독교 토착화 및 신학적인 관심에서 본 교회사

1960년 초반부터 한국 신학계에 한국 교회의 주체성과 한국적 신학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토착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파머(Spencer J. Palmer)는 1967년 출판된 저서 「*Korean Christianity*」<sup>5)</sup>에서 한국선교의 첫 단계에 있어서 한국 선교가 중국 선교에 비하여 한국 고유 문화에 어떻게 적응했느냐를 규명한다. 그는 전통적인 재래 문화와 기독교의 동일화가 선교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박봉배(朴奉培)는 1970년의 그의 박사 학위 논문<sup>6)</sup>에서 기독교와 한국의 재래 문화 및 윤리가 어떻게 상호간에 영향을 미쳤나를 가려 내려고 한다. 그의 의도는 기독교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가능성이 있는 재래문화의 요소를 이러한 연구에서 배제하지 않으려고 한다. 말하자면 박봉배는 헬무트 리차드 니버(Helmut Richard Niebuhr)의 변혁설(The theory of 'transformation')을 따라 윤리적인 관점에서 토착화 신학의 길을 모색한다.<sup>7)</sup> 박봉배는 우선적으로 윤리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다양성을 간과

5) 그의 학위 논문: Protestant Christianity in China and Korea: The problem of Identification with Tradition (California, 1964).

6) Park Bong-Bae, 'The Encounter of Christianity with Traditional Culture and Ethics in Korea; An Essay in Christian Selfunderstanding; 미국 Vanderbilt University에 제출.

7) 상계서, p. 10

한다. 민경배와는 달리 그는 한국에 온 초대 선교사들이 어떤 유형의 신앙을 가졌었느냐를 묻지 않으며, 한국의 기독교 신앙을 교회의 전통이나 기독교의 보편성(ecumenicity)에 비추어 보지 않고 단지 한국의 문화 윤리에 비추어서 본다. 즉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이 한국 재래종교를 통하여 규정지워지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박봉배교수는 한국 기독교인을 두 유형으로 구별한다. 즉, 유교를 배경으로 한 신앙의 유형과 불교 및 샤머니즘을 배경으로 한 신앙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말하자면 정치 및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도 하는 반면에, 후자는 피안적 신앙을 가져 둔세적(遁世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사를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도식에 맞추어 보아서는 결코 그 온전한 양상을 볼 수가 없다. 리차드 니버가 기독교 역사, 혹은 서양 역사를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 혹은 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부터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여하튼 박봉배의 논문은 본격적인 교회사는 아니고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문화 윤리면에서 본 논문이다.

선교사 간하배(Harvie M. Conn)는 '신학지남'과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에 1966년에서 196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1945년까지의 한국 장로교의 신학적인 발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보수 신학과 소위 자유주의 신학과의 논쟁과 대결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선교적인 면, 즉 교회의 외면적인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내면적인 생활, 즉 신학을 충실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1972년에 출판된 민경배의 「韓國基督敎會史」는 '토착화 신학'에 부응하는 교회사 저서로서 한국인에 의하여 쓰여진 최초의 전체 교회사란 점에서도 중요하며, '민족 교회(民族敎會)' 확립이란 사관(史觀)에서 쓰여진 책이란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겠다. 민경배는 종래의 교회사가 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쓰였다고 불만을 표하면서 백락준의 저서도 역시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옳게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 백락준이 취급한 1912년까지의 시대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여 바야흐로 교회가 서고 노회와 총회가 조직되던 당시의 시대성을 감안할 때 누구든지 선교사적인 관심에서 쓸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간과하는 것 같다. 민경배는 그가 말하는 소위 외국의 "선교 팽창주의"의 관점을 탈피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찾는 "민족 교회"의 역사를 쓴다는 것이다. 민경배의 저서는 한국 내의 자료도 동원하여 한국말로 쓰여진 한국 교회사로서 토착화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사



분야에서 이룩한 하나의 기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흔히 말하듯이 너무 이러한 강한 주관성 때문에 신학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먼저 도대체 “민족 교회”란 개념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당화하며 평가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다. 새로운 민족주의(Neo-nationalism)가 20세기 후반세기를 접어들면서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추세가 되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유신 정권에 의하여 민족주의가 고양되고 민족 문화의 진흥 정책도 수반되었으며 “한국적 민주주의”란 개념까지 도출되었음을 기억한다. “민족 교회”란 말이,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단순한 애국심에서 비판 없이 수납하는 말이라는 하나 “민족 교회”의 신학적인 타당성은 먼저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 민경배는 역사 기록에서 민족적인 감정과 민족을 너무 앞세우는 나머지 외국 선교회를 “민족 교회” 설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는 경향이 너무 짙다. 1974년에 출판된 그의 「民族教會形成史論」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욱 드러난다. 예를 들면, 선교사들은 영적인 운동 또는 부흥 운동을 통하여 민족교회로 형성되려는 한국 교회를 비정치화(非政治化)하고 비민족화(非民族化)하였다고 비판한다. 한국에 제일 먼저 온 선교사들이 경건주의적,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규명하면서 이것이 ‘종교심이 강한’ 한국인의 심성에 맞았다고 하는가 하면, 이러한 경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손명걸은 1974년에 쓴 그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역시 한국 교회의 주체성(identity)을 찾는다.<sup>8)</sup> 이 논문은 1930년에서부터 1970년 사이의 한국교회사를 기술하면서 특히 신학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자상하게 쓰고 있다. 손명걸은 민경배의 견해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국 교회의 주체성을 교회사 이해의 규범(Norm)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30년대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서 경고를 받았던 이단 운동들을, 주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평가한다.

1978년의 이영헌(李永獻)의 「韓國基督敎會史」는 민경배의 「한국 기독교회사」 이후에 출판된 또 하나의 우리말로 쓰인 충실한 한국 교회사 저서라고 하겠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비롯하여 이단적인 종파 운

8) Son Myoung-Gul,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under the Title, "Korean Churches in Search of Self-Identity, 1930-1970: An examination of some protestant efforts during the period of Japanization, National division and resurgence."

동에 대하여서도 다 같이 충실하게 기술하려 한 것이라든지 6·25 당시의 군대 이동과 무기(武器)의 수, 또는 세계 제 2 차 대전 전후의 막후 외교(幕後外交) 등 상세한 점까지 기록한 것을 보아서 그의 교회사관이 어떠한지를 짐작하기 어렵다. 교회사를 중심한 주변의 사건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면 몰라도 불필요한 것을 기록할 때 교회사 기술에 무엇을 중요시하는 것인지 독자로 하여금 분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 (4) 민중신학의 한국 교회사 이해

민중신학(民衆神學)에 근거한, 이렇다 할 한국 교회사의 단행본이 나온 것은 없으나 민중신학이 특이한 교회사 이해를 제시하기 때문에 교회사 방법론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 교회사관을 한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토착화 신학의 교회사적인 표현인 “민족 교회 (民族教會)” 사관은 우리 민족과 외세와의 관계에서 민족의 자주 정신을 찾고 한국 교회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선교사들의 활동을 식민주의(植民主義)와 혼동하고 한국 기독교회사를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인 전통에서 단절하여 보는 경향은 있으나 아직은 복음의 선교와 교회의 성장을 전통적인 신학과 선교 이해의 테두리에서 본다. 그러나 민중신학의 교회사 이해는 “민족 교회” 사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통적인 신학과 교회관을 이탈하며 이를 거부한다. 그러므로 전통을 존중하는 신학적 입장에서는 민중신학이나 민중사관에 근거한 기독교사관을 두고는 대화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난감함을 느낀다.

민중신학은 기독교 복음이 역사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권력층에 억눌리고 지배를 받아 온 민중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발전한 정치신학이다. 민중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70년대 말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 특히 마가복음서에서와 교회사에서 뿐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 민중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이나 사건들을 인용하고 예를 들어 민중신학의 타당성을 논증하려고 하고 있다. 민중신학이, 성경이 가난하고 불쌍한 계층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밝히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민중신학이 교회로 하여금 민중에 눈을 떠서 가난한 민중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강한 신학적인 외침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러한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중신학이 성경의 진리를 민중의 정



치적인 구원이라는 초점에만 맞추어서 보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민중신학의 민중사관은 사회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하는 권력층과 피지배층인 민중으로 이분화(二分化)하고 역사를 양자의 대립 관계에서 보는 점은 역사의 발전을 유산자와 무산자의 대립 관계에서 보는 유물사관(唯物史觀)과 비슷하다. 민중신학에서 민중은 프롤레타리아 개념과는 다르다고 하고 민중신학의 지향점이 역사의 지평을 초월하는 종말론적이라는 점에서 무산자(無產者)의 독재를 전제로 하는 유물사관과는 구별된다고는 하지만 역사의 주제 파악은 별로 다르지 않다. 민중신학은 기독교가 민중에게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쟁취하는 힘과 희망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기독교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럼으로써 기독교를 상대화(相對化)한다. 말하자면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민중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종교이면 거기서 신학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서남동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년 왕국을 두 개의 대치(對峙)되는 개념으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피안적인 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천년 왕국은 현세의 연장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봄으로써 천년 왕국에 대한 신앙을 재평가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콘스탄틴의 기독교에서,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비정치화되어버렸다고 본다. 그래서 민중은 역사의 피안을 상징하는 천국보다는 역사의 장래에 있을 역사 변혁적인 천년 왕국이라는 상징을 불가피하게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독교는 천년 왕국 신앙과 거기에 준한 미래에 대한 갈망의 여러 변형들을 이단으로 정죄함으로써 민중의 갈망을 눌러버린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천년왕국 신앙을 강조하면서 일어난 종파적인 운동에다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서양의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해해 온 복음은 비정치화된 복음이다.

주재용(朱在鏞)은 한국 기독교사를 소위 민중사관의 입장에서 5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본다. 제 1 기를 1876년에서 1896년까지의 시기로 기독교가 민중에 의해 수용된 시기, 제2기를 1896년에서 1919년까지의 시기로 기독교가 반봉건, 반식민지 투쟁에서 민중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 시기, 제 3 기를 1919년에서 1932년의 시기로 기독교가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멀어져 가면서 계몽에 힘쓴 시기, 제 4 기를 1932년에서 1965년까지의 시기로 반민주적인 민중의 교회로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찾고 선

교적 사명을 재인식하기 시작한 시기로 구분한다.<sup>9)</sup> 한국에 전해진 기독교의 수용과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민중의 정치적인 의식과 활동을 위한 것이며 그 의식의 발전으로 본다. 민중신학에서는 교회의 주체를 민중으로 본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어떻게 민중이라는 정치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그냥 대치(代置)시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나, 복음이 미미한 데서 시작하여 점점 크게 자란다는 복음서의 비유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의 성장의 개념이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개념은 전제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민중 교회”사관에서도 그러하지만 민중사관에서도 한국의 초대 교회를 처음부터 의식화된, 성장한 교회로 보거나 그런 것으로 기대한다. 교회의 구성원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젖먹이의 상태에서 새롭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주체를 복음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민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민중신학에서 교회의 주체를 민중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로 돌변하는 오클로스가 교회의 주체일 수가 없다.

민중신학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민중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다는 정치신학을 위하여 기독교 교회의 전통적인 복음 이해와 교회관을 철저하게 전도(顛倒)시키고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값을 치르는 일이다. 한국의 기독교로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이해해 온 복음에 근거하여 그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서히 자라왔고, 기독교 인구가 증가해 왔다는 사실과, 그럼으로써 기독교를 민중의 것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음을 상기한다면, 한국 교회를 있게 한 전통적인 복음 이해와 교회관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런다면 민중신학 자체의 설 자리도 없게 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9) 朱在鏞, 상계 논문.



## 2. 한국 교회와 교회의 전통

### (1) 한국 기독교사와 한국 기독교회사

‘한국 기독교사’와 ‘한국 기독교회사’는 상호 대치(代置)할 수 있는 말로 알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말이다. 유럽에서 교회사 기술에서 ‘기독교사’라는 제명으로 책이 나오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이었는데 역사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런 제명을 붙인 것이었다. 기독교사라고 할 때는 기독교를 일반 종교의 하나로 보고 종교사나 문화사적인 관심에서 기독교의 전래와 성장을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럴 경우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한때 성행하였던 경교(景教)가 한반도에까지 전래되었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러한 흔적을 추적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며, 그러한 노력과 관심은 의의가 있는 일이다. ‘한국 기독교사’라는 제명(題名)으로 책을 펴낸 이들은 아마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의식하고 그러한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윤태(吳允台)는 ‘한국 기독교사’라는 제명하에 「한국 경교사편」을 위시하여 「한국 가톨릭사」 I 편 및 II 편에 이어 「개신교 전래사」 등등 한국 기독교를 역사적인 관심에서 서술하는 책들을 내어놓았다. 김광수(金光洙)도 역시 비슷한 관심에서 한국교회사 책들을 내어 놓았다. 김득황(金得愷)이 그의 「韓國宗教史」 안에서 기독교를 다루고 있는 부분 역시 기독교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능화(李能和)의 「韓國基督教及外交史」의 경우와 같이 불교 신자이면서도 기독교를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일이 ‘한국 기독교사’라는 이름 하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김양선은 그의 「韓國基督教史研究」에서 기독교의 전래에 관련된 폭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만열(李萬烈)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자인 한국사학자들이 주로 공헌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사연구회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교회사’라는 말은 교회에 더 역점을 두고 있어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제하는 말이다. ‘기독교사’라고 할 때는 기독교를 종교의 한 형태로나 문화의 한 현상으로 다루는 일을 함축하지만 ‘교회사’라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

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사 이해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교회관을 전제로 한다.

## (2) 교회관과 교회사관 문제

교회 역사상 교회사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게 된 이해를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로마 가톨릭의 교회사 이해와 종파적(schwärmerische) 교회사 이해, 그리고 개신교적 교회사 이해이다. 이러한 이해는 각자의 교회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비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역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톨릭 교회를 하나로 봄으로써 교회사를 성육(成肉, Incarnation)의 직접적인 계속으로 보아 교회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교회는 다만 성장하는 유기체(有機體)이고, 교리는 동일성(同一性)과 계속성(繼續性)을 지닌 채 그대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생물학적인 성장이고, 역사적인 운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회 자체내의 신학적인 문제는 별 관심사가 되지 못할뿐더러 가시적(可視的)인 로마 교회와 교회의 전통은 불가침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가톨릭의 교회사관은 교회사를 순전히 하나의 유기체적인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지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역사적 움직임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에 상반되는 교회사관이 종파적(宗派的)인 교회사 이해이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의 역사성과의 상관 관계를 무시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즉, 교회를 언제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형이상학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보고 역사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보지 않는다. 개신교가 교회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종파적 역사 이해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바르트(K. Barth)와 바르트주의자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경향으로 그들의 교회사관의 약점이기도 하다.

바르트(Karl Barth)는, 교회사는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적인 진술에서 제기하는 의문에 독립적으로 대답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사를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및 실천신학을 도우는 불가결한 보조 학문으로 격하시켜 말하였다. 바르트는 '실용적인 교회사관'을 반대하면서도 교회사적인 선(線), 즉 교회사의 계속성을 거부한다. 그리하여 바르트는 그



의 「19세기의 신학사」에서 19세기의 신학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인리히 카르프(Heinrich Karpp)는 기독교의 발전 역사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계시와 동일한 본래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카르프는 교회사의 대상을 “하나님나라와 교회의 변증법적 관계”로 본다. 따라서 교회사는 신학의 중심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말할 뿐이다. ‘변증법 신학’에서는 교회사 부문에 수평적인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직적으로 독자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역사와는 관계 없이,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계속성과는 독립적으로 계시에 조우(遭遇)한다는 것이다. 변증법 신학의 교회사관은 결국 종파적 교회사관과 유사하다.

종교 개혁과 더불어 문제로 대두된 것은 교회의 역사적인 계속성의 문제였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교회와 우리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면서 속해 있는 교회가 단순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신앙하는 교회와 역사적인 교회(Kirche des Geschichte) 간의 긴장을 불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교회의 합법성은 조용히 신앙하는 사람들, 즉 진리의 증거자들의 단절됨이 없이 고리처럼 이어져 오는 선(線)에 근거한다고 하는가 하면, 불법으로 인정된, 보이는 교회는 이단(Ketzer)으로 단정하고 만 것이었다. 복음 선포의 진실과 신앙의 순수성만이 교회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전통의 상관 관계를 취급하는 것이 교회사의 과제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사는 우리의 신앙과 경건 생활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수직선과 역사상의 기독 신자들의 증거라는 수평선 간의 상관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교회사는 우리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때로는 부담스러운가 하면 유익을 주고 하는 상호 작용 가운데 성립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에서 성립하는 교회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 (3) 개신교의 교회사관과 한국 가톨릭 교회사 이해

1960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 토착화가 논의되면서부터 신학자들 간에

는 기독교를 주로 한국 고유 문화인 재래 종교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윤성범(尹聖範), 유동식(柳東植), 김광식(金光植)과 같은 이들은 한국적인 신학을 위하여서는 서양교회의 전통이 불필요할뿐더러 복음의 재해석을 통하여 서방 기독교의 전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한국적 신학'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서양 기독교의 전통에서의 단절을 주장하는 경향은 교회사가인 이장식(李章植)과 민경배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민경배는 그의 「한국 기독교회사」 서론에서 교회의 전통은 오늘날 더욱더 상대화되고 있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사의 근거는 바로 경건이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만일 누구든지 한국 교회사를 수평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다만 수직적인 면만을 고려한다면, 그는 결국 올바른 개신교의 교회사관을 갖지 못하고 한 종파적인 사관을 갖는 결과가 된다. 수직적인 면, 즉 경건만으로써는 개신교의 교회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민경배는 위에 든 그의 저서 서문에서 가톨릭 교회사도 신교의 교회사와 함께 기술할 의도라고 말했으면서도 그의 의도와는 달리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기 이전 시대의 가톨릭 역사만을 기술했을 뿐이다. 이영현도 마찬가지로 의도를 표명했었는데 개신교사와 평행하는 시대의 가톨릭 교회사를 겨우 몇 면을 할애하여 썼을 뿐, 결국은 민경배의 「한국 기독교회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신교 선교 이전의 가톨릭 교회사를 개신교 교회사 이전의 기독교 선교사(宣敎史)로 엮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가톨릭 교회사를 개신교 교회사에 함께 기술하는 데 실패하게 된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敎會觀)이 다르며, 따라서 교회사관(敎會史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관이 다르고 교회사관이 다른 가톨릭의 교회사를 개신교 교회사와 함께 섞어 서술한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사의 대표적인 책은 1962년에 출판된 유홍렬(柳洪烈)의 「韓國天主敎會史」란 방대한 저서인데, 유홍렬은 무엇보다도 가톨릭교의 선교와 신자들의 순교를 많은 면을 할애하여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개신교 선교 이후 시대의 역사는 4분의 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물론 저자가 일반 역사가이기도 하니 그렇겠지만, 교회가 확고히 서기 이전의 역사에 훨씬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가



일단 확고히 서고 나면 기구(機構, Institution)로서의 교회의 역사서술은 개신교회보다 굴곡이 적어 서술할 것이 자연 적어지기 마련이다.

많은 개신교 교회사가들이 개신교 선교 이전의 한국 가톨릭 교회사를 개신교 선교의 전역사(前歷史)로 취급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 가톨릭 교회와 이를 뒤따르는 개신교 교회사는 선교사로(宣敎史)로서 연결된 교회사로 취급된 것이지 본격적인 교회사로, 다시 말해서 신학으로서의 교회사적으로 연결된 교회의 역사로 취급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가톨릭과 개신교가 각기 분리된 상태의 종교로 한국에 전래된 것이지 한국 역사 안에서는 아무런 교회사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으로 인한 두 교회의 분열이 서양의 역사에서 일어난 것이 한국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사가들이 개신교 선교 이전의 가톨릭의 선교 역사 부분을 먼저 씌으로써 서양의 교회사책의 형식을 취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선교사(宣敎史)로서의 가톨릭의 역사 부분을 개신교의 역사와 연결된 교회사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선교사와 교회사를 혼동한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양선과 백락준은 민경배나 이영현과는 달리 개신교 선교 이전의 가톨릭 교회사를 선교사로 솔직하게 본 점은 옳았으나 그들도 역시 신교와 구교와의 관계를 서양의 교회의 형식(pattern)에 맞추어 생각했던 것 같다. 김양선이 가톨릭 신자들의 순교가 개신교 선교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라든지, 백락준이 가톨릭 신자들의 순교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가톨릭 교회가 복음서를 하나도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개신교의 선교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일 등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양 교회의 역사적인 발전을 한 컨텍스트(context)에 두고 보려고 하였다.

#### (4) 한국 개신교의 교회 전통

여하튼 가톨릭 교회사와 개신교 교회사를 병행하여 기술하거나 혹은 개신교 선교의 시작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前後)로 나누어 기술하거나 간에 양 교회의 역사적인 관계는 한국 역사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즉 서양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의 전통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신교의 교회 전통을 들자면 일반적으로 루터교, 칼빈주의 교회와 영

국의 성공회(Lutheranism, Calvinism and Anglicanism)를 든다. 한국 개신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회가 명실상부 칼빈주의(또는 개혁주의) 전통에 속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장로교회와 연륜을 같이 하며 두 번째로 큰 교세를 이루고 있는 감리교회도 넓은 의미에서는 역시 칼빈주의 전통에 속한다. 한국의 영국 성공회는 영국의 국가적인 특색이 풍기는 탓으로 다른 교파 교회처럼 성장하지 못했다. 루터 선교회는 다른 교파보다 훨씬 뒤늦게 1958년에 한국에 와서 먼저 방송과 문서로 전도를 시작하였다. 루터 선교회는 애초에 한국에는 이미 많은 교파 교회가 있었으므로 루터 교회를 따로 세울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은 말하자면 오스트호이젠(G. G. Oosthuisen)이 “루터란은 교회를 신자의 공동체임을 앞세우고 그 조직은 2차적인 것으로 본다.”<sup>10)</sup>고 말한 바와 같이 루터란의 교회관의 특징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2년에는 서울에다 루터교 신학교를 세웠고, 1965년에는 9명의 한국 목사를 장립하였다.

#### (5) '교회 전통'에 대한 이해

한국교회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전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말은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들의 신앙 유형이 어떤 것이었느냐를 알아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서양에서 개신교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온 첫 선교사들은 청교도적 경건주의 신앙을 전수하여 한국 교회 형성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김재준(金在俊)도 이를 인정하면서 한국 교회의 신학적 과업이 이 선교사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흔히 사용하는 표현에 의하면 서양의 신학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일찍부터 주장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한국에 온 초대 선교사들을 '서양 교회의 전통'과 혼돈하고 구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전통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초대 선교사들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결국은 서양 교회의 전통을 고려하는 것까지도 거부하는 유감을 범한다. 이와

10) G. G. Oosthuisen, *Theological Battleground in Asia and Africa*, C. Hurst & Company, London 1972, p. 2



같이 서양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한국교회의 독자성 (Eigenständigkeit)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교회사관은 교회사의 수평적인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각 시대의 교회와 신학을 말씀과 계시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이해하려는 변증법 신학(Dialektische Theologie)의 교회사관이나 종파적인 교회사관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와 반면에 일부 신학자들은 초대 선교사들의 신앙을 '청교도적 칼빈주의'라고 하여서는 이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한국 장로교회의 표준적인 신학이라고 하고, 한국 장로교회는 이를 교회의 전통으로 고수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초대 선교사들을 한국 교회의 사도로 지나치게 이상화하면 본의 아니게도 교회 전통의 계속성을 단절시키는 결과가 된다. 한국에 온 초대 선교사들은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로서의 신자요, 개신교의, 더 좁혀서 말하면, 칼빈주의 교회의 한 특정한 교파를 대표하는 선교사일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은 초대 선교사의 신앙에서 뿐 아니라 더 소급하여 칼빈주의, 즉 개혁주의의 역사적 발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신앙을 청교도적 혹은 경건주의적 신앙 유형이라고 한다면, '청교도적'이라거나 '경건주의적'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정관념(固定觀念)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운동이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일어났으며 그 본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 3. 결어 : 한국 교회사의 과제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 현재의 교회와 신학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신학을 분야별로 나누어 연구할 때 신학 전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신학 전체를 몸으로 비유한다면 몸의 일부인 각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서 지체끼리 상호 관련을 가지면서 서로 도울 때 건강한 몸을 기대할 수 있듯이 전체의 신학과 분야별의 신학과의 관계도 역시 그러하다. 몸의 지체가 잘리면 불구이듯이 어느 분야의 신학이든지 소홀히 하면 파행적인 신학이 될 수밖에 없다.

교회사는 신학의 한 분야이며 방법으로서 역할할 뿐 아니라, 교회사는 우리의 기독교적 생존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교회에 속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영적인 교회에 속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교회의 영적인 생활 표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을 결정지우며 계속 우리에게 생기를 준다. 그러나 종파적인 교회관을 가졌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수평적인 선이 없이는 수직적인 선이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인식한다. 말씀과 교회는 역사 속에 사는 우리의 기독교적 존재를 결정지우는 데 다 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역사적인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회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의 역사적인 현상들의 특이성을 깨닫는 동시에 보편성(universality)과 세계성(oecumenicity)을 발견해야 한다. 역사적인 보편성과 역사적인 특이성은 한국사라는 일반 역사 연구에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문제이듯이 교회사 연구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양극의 축과 같다. 기독 신자로서의 우리의 존재(存在)와 사고(思考)는 역사성이라는 범주의 테두리 안에서 좌우되는 것인데, 교회사에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눈을 뜨게 만드는 숨어 있는 요소가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철저히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관계 속에 살며 또한 사고한다.

한국 교회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교회의 전통(傳統)을 찾아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할 때, 다시 말하여 가령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를 기술할 경우 장로교회의 전통을 개혁주의의 역사적 발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서양의 칼빈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한국 교회의 양상을 진단하는 규범(norm)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서양에서도 칼빈주의가 각 나라에서, 그리고 시대를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발전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국인의 모임인 한국 교회의 독자성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개혁주의를 서양 세계의 경계를 넘어 발전하는 개혁주의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장로교회사를 기술한다면 일단 그것을 칼빈이나 칼빈주의의 신학적인 견해에 조명해 보자는 것이며, 교회사적인 사건이나 교회의 양상을 역사적인 전통을 가졌고, 복음을 전수한 서양 교회에서 또는 한국 교회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소위 선교 교회에서 그 유사성이나 상이성을 발견하고 비교 검토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한국 교회사와 교회의 양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한국 교회사를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보편성(ecumenicity of the



church)을 고려하면서 볼 때 1907년의 부흥 운동을 한국인의 대단한 종교심의 열매라든가, 혹은 사회·정치적인 여건에서 온 산물이라거나, 혹은 비민족화(非民族化)의 운동이라든가 하는 편협한 일방적인 이해에 빠지지 않고, 부흥 운동이 17세기말부터 서양 교회와 세계의 여러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보다 타당성 있게 고찰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3·1 운동과 기독교인들이 독립 운동에 참여한 사실도 기독교회사에서와 칼빈주의를 따른 여러 나라에서 그와 유사한 사실들을 찾을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또한 독립 운동에 대한 신학적인 해명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정교 분리(政教分離)'란 말도 교회사적인 전통에 비추어 이해하면 그것이 결코 교회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하는 말이거나 교회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려는 하나의 구실로서의 구호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것은 본래 교회를 지배하려는 정치 세력에서 교회가 자유를 누리기를 위하여 교회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종교 개혁 당시로 말하면 그것은 개신교를 억압하려는 로마 가톨릭과 야합한 정치 세력에서 교회의 독립을 주장한 말이었다. 바로 이 '정교 분리'가 종교적 및 정치적 자유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개신교 시민들에게 불어넣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30년대부터 해방이 되기까지의 신사 참배 반대 운동도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일반성(ecumenicity)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어떤 특정한 신학이, 예를 들어 변증법적 신학이 서양, 즉 독일과는 역사적(歷史的)으로 또는 사상사적(思想史的)으로 전혀 그 배경을 달리 하는 선교지에 와서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그 영향이 나타나고 발전하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한국 장로교회가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서양의 전통적인 개혁주의를 일단 여과(濾過)하여 수용함으로써 바람직한 개혁주의 교회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거나 혹은 특이한 개혁주의 교회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나 같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는 것도 한국 교회사 연구의 한 중요한 과제이다.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신학 사상은 그 사상을 배태(胚胎)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할 경우 교회사는 신학으로서 그 자체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개신교를 교회의 전통에 비추어 고찰하는 역사적 연구가 하나의 시급한 과제이다. 토착화 신학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가진

수직적(垂直的)인 교회사 이해만으로써는 탈기독교적(脫基督教的)인, 혹은 반기독교적(反基督教的)인 종파 운동(宗派運動)에 대하여, 예를 들면 통일교나 박태선파나 그 밖에 여러 사이비 기독교적 종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파들 역시 수직적인 역사 이해를 가짐으로 계시와 성경 이해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사는 한국 교회와 한국의 신학이 있으므로 성립하고 또한 한국교회사 연구는 그 교회와 신학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 신학의 수립'을 운운할 때 그 말은 앞으로 한국 교회에 한국 사람을 염두에 둔, 한국 사람에게 의한 신학이 나와야 하고 그러한 신학적이며 교회적인 전통이 서고 발전되어야 하겠다는 의도를 함축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전통'을 말하면서 교회의 전통을 묵살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과거와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고, 과거와 현재를 고려하지 않은 미래 설계란 있을 수 없다. '한국신학의 수립'은 신학으로서의 한국 교회사의 필연적인 과제이다. 그런데 '한국신학(韓國神學)'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한국적임을 앞세우는 신학(a typical Korean theology)'이 아니고 '한국인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높이며 고백하는 신학(the Church and theology in Korea)'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사의 과제는 모든 다른 분야의 신학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규범으로 삼되 교회의 조직과 제도, 예배를 위시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및 제반 활동과, 성경이해를 포함하는 신학을 그 전통에 비추어 평가하며, 또한 그것을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및 사회적인 상황에 비추어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교회와 신학이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